市-郡 경계 사이에 두고 땅값 30배 차이

광주 인접지역 공시지가 조정

담양 등 5개 군 세수 증대 기대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행정구역간 개별공시지가 조정에 나서면서 인접 시·군간 공시지가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의 상향 및 하향 조정이 이뤄지면 땅 소유주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이의신청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 등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에 따라 최근 인접 시·군·구 관계 공무원간 연석회의를 갖고 행정구역간 경계지역의 지가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조정이 이뤄지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접 지역 지가가 수십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고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상향으로 세수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볼때 광주시 북구 태령동 55번지 밭의 경우 ㎡당 6만2천500원인데 반해 인접한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산 44-1번지는 ㎡당 2천60원으로 30.3배나 차이가 난다.

또 같은 임야인 광주시 북구 태령동 306번지는 ㎡당 6만5천600원으로 인근 담양군 봉산면 와우리 산 25-4번지 2천490원의 26.3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담양군은 광주시 북구·장성군·곡성군·화순군·전북 순창군 등 인접 5개 지자체와 이달 중순부터 연석회의를 갖고 지목별·용도지역별로 경계지역 토지의 산정지가를 비교 검토해 조정에 나선다.

담양군의 경우 이번 조정에 포함되는 대상 토지는 남면·대덕면·수북면·대전면 등 9개 면 288필지에 달한다.

이들 지자체들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지가조정을 마친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지가를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들은 6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말 최종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담양군에서는 지난해 행정구역간 지가조정으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5.11% 올랐으며 18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23건이 상향 조정된 반면 47건이 하향 조정됐고 117건은 기각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들은 세금 부담을 이유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나 개발예정지 등 향후 토지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공시지가 상향을 원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장성 백양사 고불매 꽃망울 '활짝'

지난해 10월 천연기념물(제 486호)로 지정된 장성 백양사 '고불매(古佛梅)'가 최근 꽃망울을 터뜨렸다. '고불매'는 나무 둘레 1.8m, 높이 6m 규모로 수령이 360여 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광주 지하철 화순 연장 '상생 발전' 기대

박광태 시장·전완준 군수 합의 … 2011년 착공

화순군과 광주시가 도시철도의 화순 연장에 합의해 양 지역의 상생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전완준 화순군수는 지난 7일 광주도시철도를 화순까지 연장키로 전격 합의하고 타당성 용역비는 시·군이 공동으로 확보하되 주관은 광주시가 하기로 했다.

올해 타당성 용역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오는 2011년께 착공하게 된다.

광주도시철도의 화순 연장 구간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에서 화순군 화순읍까지 총연장 11㎞(광주 6.3㎞, 화순 4.7㎞)다.

박 시장은 11일 광주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을 앞두고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 광주 지하철을 동구 용산동에서 화순읍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줄기차게 연장 요청을 해왔다"며 "화순까지 연장될 경우 신 광주 메트로폴리탄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화순 연장 노선

이에대해 전완준 화순군수는 "광주 도시철도가 화순까지 연장될 경우 광주와 화순군의 역동적인 교통망 확충으로 활발한 경제, 문화교류가 이뤄져 상생발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순군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돼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광주~화순간 도로는 화순읍 택지내 상당수 주민들이 광주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데다 지난 2005년 개원한 전남대 화순병원의 하루 이용인원이 2천명에 달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 생물산업연구센터가 들어 선데다 녹십자 백신공장 준공과 모후산 테마파크 착공을 앞두고 있어 도시철도의 화순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강진군·中 룽취안시 교류 확대

청자로 자매결연 … 학생들 교환방문까지 발전

강진군이 중국의 대표적 청자생산도시 저장성(浙江省) 룽취안(龍泉)시와의 교류를 교육부문까지 확대한다.

강진군은 9일 "최근 강진을 방문한 룽취안시 쉬빙동(徐炳東) 부시장 일행과 교육교류협정을 맺고 여름방학(8월)에는 중국 학생들이, 겨울방학(1월)에는 한국 학생들이 상대국가를 방문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강진 성요셉여고와 중국 룽취안 제 1중학교 학생들이 상호 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지게 됐다.

양 지자체는 대표적 청자 생산지라는 인연으로 2001년 자매결연을 한 이후 매년 강진 청자축제와 룽취안 청자 보검축제에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우의를 다져오고 있다.

이번 교육교류협정은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학생들까지 확대한 것으로 양 지역 고교생 1, 2학년 20~30여명이 매년 방학을 이용, 상호 방문하게 된다. 학생 교류시 항공료는 파견국에서 부담하고 체재비는 초청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화순 농산물 마케팅 세일즈단' 결성

농협 화순군지부·화순군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와 화순군이 지역 농축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지난 4일 도곡농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화순농산물 마케팅 세일즈단' 결성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한 세일즈단은 군청과 지역농협 판매담당 책임자, 미곡종합처리장(RPC)장장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경기지역 농협 유통센터와 대형유통업체 등 도시권 시장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류철환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은 "출향인사 7만3천명을 평생 고객으로 확보하고 화순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화순군이 선정한 10대 농특산물에 대해 공동생산에서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군, 천연 살충제 '제충국' 나눠줘

장성군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해 천연 살충제인 '제충국<사진>'을 무상으로 분양한다.

제충국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줄기와 꽃에서 분비되는 '피레트린'이라는 물질이 곤충에 대해서는 강한 독성을 가지면서도 사람과 가축에겐 전혀 해가 없어 새로운 천연 살충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제조방법은 제충국을 그늘에서 2주 정도 말린뒤 95%이상의 에탄올에 담가두고 1일 가량 지난후에 가는체로 걸러 녹색의 액체만 모으면 된다. 사용방법은 줄기에서 추출한 경우 물에 500배로 희석하고 꽃에서 추출한 경우에는 1천배로 희석해 살포하면 된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함평 나비엑스포 휴대전화로 만난다

오는 18일 개막하는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생생한 소식을 휴대전화로도 접할 수 있게 됐다.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모바일 홈페이지(m.hampyeongexpo.org)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요와 공지사항, 보도자료, 행사일정, 입찰공고, 민원·생활정보 다운받기, 자료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자료마당 메뉴에서는 함평엑스포의 주제 애니메이션인 '아하! 나비구조대'의 주제곡과 5개 스틸샷이 벨소리와 배경화면으로 서비스된다.

이용방법은 휴대전화에서 검색창에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를 치거나 숫자 '3976'을 누른 뒤 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르면 연결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